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10/24℃ 목포 12/23℃ 여수 14/22℃

단기 4342년 (음력 9월 6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04호 2판 2009년 10월 23일 금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정부, 문화수도 흔드나

문화전당 인력 36%·운영비 42% 감축

지역문화계 "경제논리만 내세운다" 반발

정부가 오는 2014년 완공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인력과 운영예산을 대폭 감축키로 해 광주문화수도의 핵심시설로서 기능과 역할이 크게 위축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지역에서는 "정부가 최근 세종시 수정방침을 정한데 이어 참여정부 때 추진된 국책사업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따르면 문화전당의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해 전당 개관 운용인력과 운영비를 줄여 예산 657억원을 절감키로 방침을 정했다.

추진단은 구체적으로 전당의 운영인력을 462명에서 296명으로 36% 감축하고 건물 청소, 시설 관리를 외부 용역기관에 위탁키로 했다.

추진단은 당초 용역결과 문화전당의 핵심시설인 아시아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민주평화 교류원 등 5개원을 운영하는 데 462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으나 체계적인 분석이 아니라고 판단, 인력 감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또 자체 예산을 포함해 오는 2012년까지 전당건립과 관련한 콘텐츠 확보 용역 등 전당 운영비 1천466억원을 859억원으로 42% 삭감키로 했다.

이와함께 추진단은 미래 문화 수요층인 어린이들의 전용공간인 문화전당 내 어린이 지식문화원의 공간을 축소해 도서관과 미술관 기능을 보강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경제적인 논리에 따른 획일적 인력감축으로, 문화전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문화콘텐츠를 발굴 육성할 문화인력이 절실하다는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문화전당 건립 효과로 내세웠던 광주 지역 고용창출 효과 6만7천명, 생산유발 효과 4조1천569억원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도 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당초 용역결과로 제시됐던 전당 개관 인력은 개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외 유사기관의 사례 등을 검토해 인력을 조정했다"며 "인력과 예산은 현재 방침대로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진행에 따라 재조정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정부가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축소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역 문화계의 한 인사는 "정부가 문화전당 조기 건립과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대한 확고한 지원의지를 심어주는 것은 고사하고 경제논리로만 문화수도 사업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광주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니만큼 정부의 발상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로페즈의 포효 22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5차전 KIA-SK 경기. KIA 선발 로페즈가 완봉승을 거둔 후 환호하고 있다. /잠실=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시리즈 5차전 SK에 3-0 완봉승

1승 남았다.

KIA 타이거즈의 '특급 용병' 로페즈가 22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완봉승을 거두며 팀에 세 번째 승리를 안겨줬다. 〈관련기사 18면〉

이용규의 '개구리 번트'가 경기의 승부처였다.

마운드 기싸움이 이어지던 3회말 이현곤의 2루타와 김원섭의 내야안타로 1사 1·3루의 득점 기회가 찾아왔다. 2번 타자 이용규가 바깥으로 빠지는 높을 공을 쫓아 '개구리 번트'를 성공시키며 SK 마운드를 흔들었다.

이용규의 스퀴즈 번트로 선취점을 뽑은 KIA는 로페즈의 철벽방어 속에 1-0의 리드를 이어갔다.

6회말 다시 한 번 KIA의 공격이 시작됐다. 선두타자 이용규가 중전안타로 출루한 6회, KIA는 최희섭·김상현의 연속안타에 힘입어 2점을 추가하며 3-0을 만들었다.

선수단 철수로 김성근 감독이 퇴장당하면서 사령탑없이 한국시리즈를 치른 SK는 로페즈 공략에 실패하면서 완봉패의 수모를 당했다. 안치홍, 김상현은 호수비로 로페즈의 완봉승을 돕는 등 공·수에서 KIA가 SK를 압도했다.

10번째 가을의 전설을 눈앞에 둔 KIA는 에이스 윤석민을 앞세워 마지막 1승 사냥에 나선다.

지난 17일 광주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 투수가 됐던 윤석민은 23일 열리는 6차전 경기에서 송은범과의 '최후의 대결'을 펼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찬성률 50% 안돼도 통합 가능

광양만권·무안반도 내일부터 여론조사

광양만권(순천·여수·광양·구례)과 무안반도(목포·무안·신안)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여론조사가 24일부터 시작되며, 여론조사 찬성률이 50% 이하가 나오더라도 통합 대상지역이 될 수 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가 접수된 18개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오는 24일부터 1주일간 실시하고, 결과는 11월 초에 지역별 내용을 취합해 일괄 공개할 계획이다.

여론조사는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 4곳을 선정해 46개 시·군별로 주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지역별 조사 일정은 반대단체의 방해 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또 애초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50%를 넘는 지역에 대해 통합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조사에서 무응답이 있을 수도 있어 찬성률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통합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 심의에서 통합대상으로 결정된 지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통합 찬성을 의결하면 통합이 이뤄지고, 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확정된다.

한편 행안부는 자율통합을 조직적으로 반대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무안군과 전북 완주군, 충북 청원군, 경기도 구리시 단체장들을 조사해 내주 중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통일쌀 70여t 12월중 北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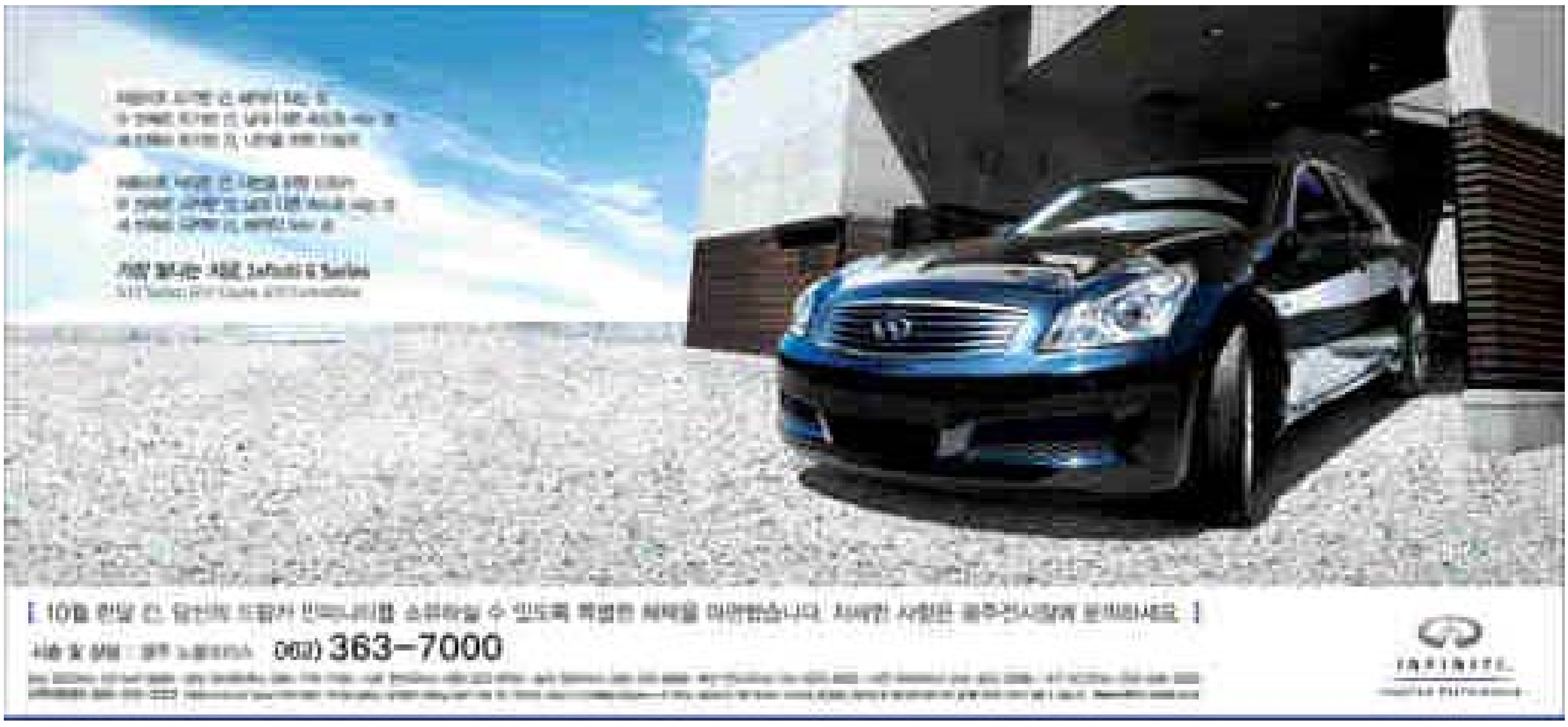
전농 광주·전남연맹

'쌀 대북지원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광주·전남 각 시·군에서 수확한 통일쌀과 지난 8·15농민대회때 모은 나락·쌀 70여t을 오는 12월중 인천항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기로 했다.

22일 전농 광주·전남연맹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 13개 시·군 33만4천546㎡(10만1천200평)에서 '통일쌀'을 경작, 50여t을 수확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쌀 대북지원 법제화를 요구하며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4만9천587㎡의 논에 대북 지원용 경작지를 조성해 농사를 지어온 광주시농민회는 22일 벼 재배 현장에서 '통일 쌀 추수 대동제' 행사를 가졌다.

연맹은 광주·전남에서 모은 통일쌀은 70여t에 이를 것으로 보고 다음달 중 대북지원 법제화 대국민 선전을 벌인데 이어 12월 중에는 인천항에서 통일쌀 환송식을 가질 계획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일보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자칼엔하이드 · 09년10월 24일~25일 · 광주문화예술회관
김장훈·싸이 원타치 · 09년12월 26일 · 광주월드컵경기장